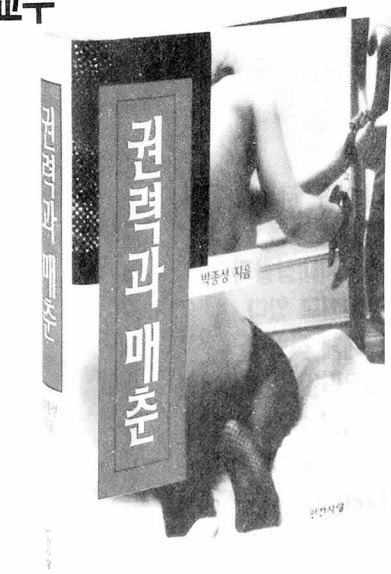


# 눈 같은 '매매춘문화'의 실체 파헤쳐

## 《권력과 매춘》 펴낸 박종성 교수

근대적 성규범을 부르주아의 발명품이라고 한 푸코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권력과 성, 매춘과 권력이 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 94년에 《한국의 매춘》을 출간했던 서원대 박종성 교수(43·정치학)가 그 연장선에서 《권력과 매춘》(인간사랑)을 펴냈다. 매춘은 일방적인 단속과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통제되어 온 존재라는 것이 이 책에서 펼쳐지는 그의 논지다.



###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폭력

“매춘 행위가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묵인·방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매춘은 단순히 개인의 욕구배설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즉 권력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매춘을 통해 해소시키게 하고, 불법적인 매춘을 법에 의한 통제영역 확대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다는 얘가지요.”

매춘과 권력의 고착관계는 “적당히 썩게 내버려두고 적당히 씻는 척하기 위함”이라는 시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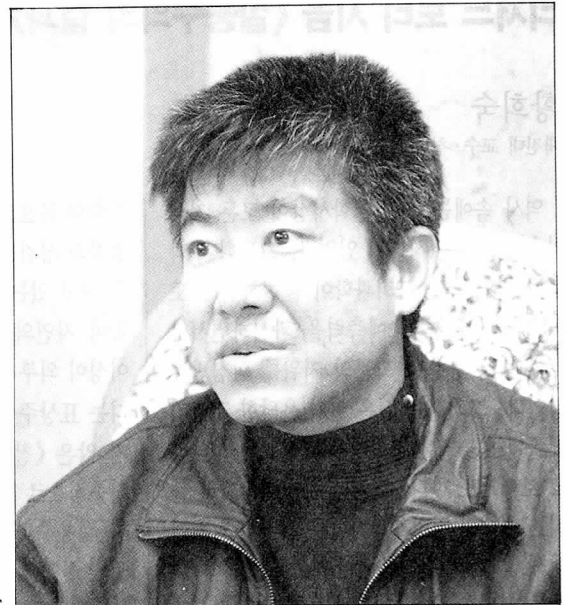
박교수는 이 책에서 매춘에 관한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조선왕조실록> 등 옛 문헌을 통해 조선시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매춘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을 살피고, 사회현상으로서의 매매춘을 진단하며 각종 예술장르에 나타난 사례도 들었다. 문학과 영화를 비롯해 신문·잡지 기사

등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매매춘 문화’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매매춘이 들어온 것은 19세기 말 병자조약 체결 이후.

매매춘은 100년 동안 우리의 근대사와 같은 길을 걸어왔다. 현재 매매춘은 사창가뿐 아니라 술집, 증기당, 이발소 같은 곳에서도 횡행하고 있다. 윤락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수는 대략 1백만명, 매춘 여성의 주변에서 공생하는 인구까지 추산하면 4백만명 정도의 수치다. 결코 무시하고 방임할 만한 숫자가 아니다. 이들 1백만의 윤락여성도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이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그들의 기본권은 지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박교수는 강변한다.

“그러나 그들 자체가 전면에서 나서서 것을 꺼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최근 윤락여성 6백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가 ‘자의’에 의해

윤락여성의 생활은 눈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 허우적거릴수록 치명적이라 더욱 음지를 찾아든다. 또한 권력이 그들의 음습한 부분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양지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박종성 교수.

매춘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합니다. 매춘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이상한 폭력입니다. 그러나 매춘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려서도 안됩니다.”

### 공론화 모색해 볼만

윤락여성의 생활은 눈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음지로 음지로 찾아든다. 차라리 직업으로 인정하고 공론화시킨다면 관리와 규제도 쉽고 보호도 쉬우리라는 것이 박교수의 주장이다. 문제는 권력이 그들의 음습한 부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양지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법이라는 것도 이들을 규제하거나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1월 윤락행위방지법을 개정, 쌍벌규정을 도입하고 벌칙을 강화했지만 매춘의 근절보다는 최소한의 통제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박교수는 거대담론을 핑계로 사회의 썩어

가는 부분을 돌아보지도 않는 정치계와 학계의 권위적인 자세에 비판적이다. 자신의 세력화 구축에 바쁜 여성학계 역시 마찬가지. 세미나 준비에는 바쁠지언정 매춘여성의 손을 한번이라도 잡아본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박교수는 지난 9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혁명의 이론사》 《박헌영론》 《정치는 파벌을 낳고 파벌은 정치를 낳는다》 《한국의 매춘》 《왕조의 정치변동》 《권력과 매춘》 등의 책을 펴냈다. 1년에 1권꼴로 저작을 내고 있는 그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 술약속과 원고 청탁도 받지 않고 강의시간 외의 일과는 자료수집과 집필에 바친다. 전공인 정치변동론·혁명론 외에도 문학과 영화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원고를 쓰기 시작한 《강점기 조선의 정치질서》는, 《왕조의 정치변동》에 이은 후속편 격이다.

—마정미 기자

## 주요취급간행물

- 신 문: NEW YORK TIMES/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LE MONDE/LE FIGARO  
FRANKFURTER ALLGEMEINE/HANDELSBLATT  
DIE WELT/DIE ZEIT/SOUTH CHINA MORNING POST  
ARAB NEWS 외
- 시 사: NEWSWEEK/PEOPLE/FORBES/BUSINESS WEEK/LE POINT  
L'EXPRESS/PARIS MATCH/LE NOUVEL OBSERVATEUR  
DER SPIEGEL/STERN/FOCUS/WIRTSCHAFTS WOCHEN  
컴퓨터: COMPUTER GAMING WORLD/COMPUTER SHOPPER  
GAME PRO/UNIX REVIEW/BYTE/PC WORLD  
PUBLISH/INTERACTIVITY/VIDEO GAMES 외 다수
- 패 션: VOGUE/ELLE/COSMOPOLITAN/HARPER'S BAZAAR  
VOGUE PARIS/MARIE CLAIRE/DEPECHE MODE  
EMPERIO ARMANI/FASHION LINE/NEXT FASHION 외
- 기 타: INTERVIEW/ENTERTAINMENT/VARIETY /BILLBOARD  
ROLLING STONE/SPORTS ILLUSTRATED/GOLF DIGEST 외

## 세계의 신문·잡지

세계화  
정보화  
지식화를  
리드하는 GREEN 기업



SINCE 1963

### 韓國出版貿易(株)

Korea Overseas Publications Inc.

## 정기 구독 안내

- 매일 항공편 직수입 체계로 보내드립니다.
- 가격이 인상되어도 주문시 가격으로 구독하시게 됩니다.
- 원하시는 분께는 「세계의 신문·잡지」 책자와 SAMPLE를 보내 드립니다.
- 전화주문: (02) 735-5401/3
- FAX주문: (02) 736-3463, 735-5404
- 우편주문: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60